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세상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 도 다함께
- 성 시 시편 1편 1-3절 인도자
- 찬 송 28장(통일 28장) 다함께
-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로마서 12장 2절 인도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인도자
- 찬 송 384장(통일 434장) 다함께
- 주기도 다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설날은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보람되고 가치 있게 보낼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설날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수 있을지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달려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세상의 틀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세상 문화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세상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설날 연휴 -
성경통독사경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2월2일(수) 오후1시~오후5시 / 2월3일(목) 오전8시~오후5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범위 : 롯기~옴기

설날 연휴기간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일(수) 오후1시 개회예배를 드리고 구약성경 롯기 1장부터 3일(목) 오후5시 옴기 42장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

사로 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해지기 쉬운 명절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한다.
 회비는 1만원이고, 사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섬김의 경로잔치

2월9일 수요일부예배 후 만나 홀(801호)에서

우리교회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전도회, 은빛 찬양대 및 살롬 권사회에 속한 70세 이상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경로잔치가 2월9일(수) 열린다.

이날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며 교역자들 중심으로 특별순서와 인사의 시간이 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2011 농어촌 100교회 운동 · 비전2020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하는 성도
8층로비에서 등록받는것은 이번주 마감한다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1구좌 이상

박진희4 김명옥 임광호(김정미) 박은주 김원중(이갑연) 이남성(최영란) 도르가전도회 정길영 오정수 차동훈(남태영) 강홍래 송재현(선순례) 한승집(최미아) 김은경 홍성주(여현진) 유문건(김안성) 모세선교회 양춘경(이인숙) 이조흔(이고은) 원명희 은기장(김경숙) 류충기 이사선교회 제1권사회 이호 베드로선교회 김권집(왕경애) 주화인 김혜수(윤운) 민혜정 바울선교회 엘리야선교회 아브라함선교회 뽀뽀전도회 마리아전도회 하나전도회 리브가전도회 제1스데반회

1/2구좌

김관규(윤혜련) 루디아전도회 이동만 이상욱 송동선 이강인(허숙) 강낙훈(심상희) 홍석현 김형상(최금숙) 황병석 주경자 전수자 최향봉 5-1,5-2다락방 이민희(신순자) 김은정 백 훈 김영비 빌립선교회 안드레선교회 사라전도회 살롬권사회

(다음 주 계속)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명단>

1/2구좌

강낙훈(심상희) 공채영 김관규(윤혜련) 김광태(최종희) 김사라

김선자 김성은(김성경 등) 김성은 김숙영(최승환) 김순덕 김정제 김현송 노진아 루디아 전도회 류한민 류한희 백 훈 송영준 심군섭(정수은) 심설아 심재호 심주하 유동훈 유혜숙 윤명규 이강인(허숙) 이영미(류동식) 장애순 장창수 전수자 차도훈(남태영) 최재민 최재현 주현숙 황병석

1구좌

강진화(양정실) 김기욱(권영월) 김원중(이갑연) 김은경 김혜수(윤운) 도르가 전도회 류충기 모세 선교회 박진희4 배재송(임분도) 뽀뽀 전도회 서해숙 양춘경(이인숙) 오명걸 오유식 오정수 원명희 유기찬 이 훈 이근대 이우진 이종일 임광호(김정미) 정철웅(오선혜) 차영도(정미연) 홍승전

(다음 주 계속)

<Vision2020 후원자 명단>

김은경 김숙행 김명재(김현숙) 김성준(김선영) 김사라 김재근(안분선) 김은정 김혜수(윤운) 강창숙 김영정 김진숙 민혜정 박명석(김윤섭) 송지은 양득춘(최혜인) 이종돌 오영자 이용숙 이광배 이운영 임송자 유명석 윤복순 안성현(유숙인) 양옥자 조은식 최영순 최무순 최향봉 차영도 탁경준 한종우(황노진) 사라이 전도회

(다음 주 계속)

201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우리가 다음세대 일꾼이에요	박진아 목사
유년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김안성 목사
초등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서명철 목사
사랑부	2.13 (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문정훈 목사
청년1부	2.28 (월)~3.1 (화)	아가페타운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노철 목사 / 장석남 목사
청년2부	2.25 (금)~26 (토)	아가페타운	새로운 기쁨으로 거듭나자	박노철 목사 / 황광 목사
에바다	2.26 (토)	서울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박노철 목사 /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2 (토)	아가페타운	성숙한 가정을 위한 신혼가정의 과제	박노철 목사 / 한상은 목사

엘리베이터 이용안내

우리교회는 이번 주부터 새 가족과 노약자를 섬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모든 성도들은 이에 동참하기 바란다.

전망 엘리베이터는 2층에서 8층으로 직행하도록 하여 노약자 전용으로 이용하며, 1, 2호기 엘리베이터도 노약자와 새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특히 청장년들은 계단으로 다니도록 한다.

제7기 설교사역도교 교육

2월6일(주일)~27일(주일)

4주간 / 오후3:30~4:30, 609호

제7기 설교사역도교 교육이 2011년 2월 6일(주일)부터 27일(주일)까지 4주간 609호에서 정수길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도교사역의 의의, 도교의 특권과 의무, 도교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교, 설교사역 도교의 중요성과 도교의 실제 등이며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뽀뽀 전도회 새해 맞이 분당 청소

뽀뽀 전도회(회장 김정제 집사)는 지난 1월 27일(목) 분당(2,3,4층)의자를 대청소 하였다. 뽀뽀 전도회는 그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이곳저곳 청소해 왔으며 새해를 맞아 분당을 가장 먼저 청소하였다.



결혼식 식대 변경 안내

2011년 2월부터 결혼식 식대가 일인당 종전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식대 상승은 식재료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득불 한 일로 결혼식 신청 시 차질 없길 바랍니다.

금주의 성구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9)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John 10:29)

선교지 소식

하나님은 친절한 동역자



이종길 홍미영 선교사 (말레이시아)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28일 서울교회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사역방향은 팔리따가람 바미시입니다(Tali Tiga Lembar Misi / Threefold Cord Mission). 저희 부부의 선교 사역은 첫째 원주민 교회 개척, 둘째 전인치유센터사역, 셋째 선교 센터 사역입니다. '때가 찬 경륜' (엡1:9)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소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시131:1) 나는 내 갈 길조차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 따라 매일 한 걸음씩 걷기 원합니다. 저의 보폭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5년, 10년의 청사진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걸음씩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내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

2010년 12월 9일, 사라왁(sarawak)주 정글지대에 있는 라와스(lawas)지역 비전트립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되었는데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마침 국경일이라 정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다 내려온 겁니다. 더 큰 일은 내일도 빈방은 없다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밤 노숙해야 하나요? 모기떼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작정 큰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민가만 몇 집 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강을 건너라 하십니까? 아무 민가애나 들어가면

박을 하라는 뜻인가? 게다가 작은 나무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이미 저녁8시가 가까웠고, 어둡고 캄캄해서 저녁 6:30 이후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만 믿고 나루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 한 척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배를 잡아 강을 건너 어둡고 미끄러운 진흙밭에 내렸습니다. 한 차례 넘어져 옷을 다 버리고, 무성한 풀밭을 지나 불빛을 향해 걸다가 신학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한 동역자 솜뎡(Sumping)목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 나의 친구들 뼈라니, 국강 등의 소식을 듣고 연락하고, 새로운 동역자들도 만나고 싶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염려는 다 쓸모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든 선을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라와스 신학교 전경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하며

비울 때 더 많이 채워 주시던 하나님

김장섭 집사 (13교구)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전 업무로 지친 몸을 달래고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1가정 1선교사 후원 운동” 관련 글을 순례자에 실을 예정인데 편집위원들께서 저를 지목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것도, 후원 기간도 오래되지 않은 터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의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주님을 영접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제게 있어 선교나 전도는 남의 일이었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몇몇 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몫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성경중심 설교와 개인적인 말씀 목상을 통해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3:1)”라는 성경 말씀대로 때마침 시작된 범 교회적 ‘1가정 1선교사 후원 운동’과 ‘농어촌 100교회 후원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남들같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십일조

외에 별도의 지출항목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울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저로 하여금 후원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궁핍함도 없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가정에서 단기 선교사도 파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해 있었던 말라위 단기선교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딸아이를 지켜보면서 선교사 후원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에 감사도 감사할 뿐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제가 드린 작은 물질이 지구촌 그 어디에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불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실 생활을 이유로, 믿음의 분량을 핑계로 후원 운동 참여에 망설이는 성도님들께 감히 권면하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의를 구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간구 하옵기는 ‘주님의 일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비록 무익한 종일 지라도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주님의 자녀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롭게 진행 중인 겨울 수련회



디아스포라부 겨울 수련회에서 강의하시는 박노철 목사



중등부 겨울 수련회



은혜로 진행된 대학부 겨울 수련회

나의하나님

뜨거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금요기도회



강혜주 성도 (청년부)

2011 금요기도회가 새로 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며 참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목사님께서 기도회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에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결과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에서 실패할 때는 나도 모르는 절망감에 빠져들기 일쑤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의무감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노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신다는 설교를 통해 나의 마음은 조금씩 풀려났습니다. 최고의 결과보다



는 나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더 이상 성경에서만 읽는 고백이 아닌 내 삶에서도 우러나오는 고백이길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홀의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는 보조 의자들을 놓아야 할 만큼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의 금요기도회를 향한 기대와 열망도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요기도회에서 할 수 있는 기도와 기쁜 찬양을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금요기도회의 특색을 살려 설교하시는 박노철목사님의 모습에서 금요기도회 부흥을 위한 열정이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열정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열정은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서울교회의 2011년을 기대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신모란 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할렐루야 찬양대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신모란 성도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콘서바토리와 로마 아카데미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 국립오페라 단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오산 청소년합창단 보컬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오직 주만이(이우정곡)'의 2곡을 김양연성도(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동정

- 승진: 16교구 임대훈 집사 두산중공업 이집트 지사장
- 개업: 1교구 김태영 집사(정문군 집사) '건강디자인' 은마상가B-233호 전화 556-9100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1.30) 안드레선교회(2.6)
- 금주의 식사제공: 교회제공

겨울수련회 초대이름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황성일 성도 (사랑부 교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는 없지만,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그러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사랑부입니다.

사랑부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서울교회 사랑부에서는 2월 13일(주)에 하나님의 일꾼이예요!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엽니다. 사랑부 지체들의 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우

들이 이번 겨울성경학교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사랑부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사랑부 지체들이 제대로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도 없고, 제대로 율동을 할 수도 없지만,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나타나며, 그런 모습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과 성령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